

# 청소년들의 춤사위·국악·클래식...열정·끼로 더위 날렸다

‘제12회 광주·전남 청소년 축제’ 광주 동구 금남로공원 특설무대

### 새내기 팀부터 창단 20년 오케스트라까지 다양한 무대 펼쳐 협연 무대로 우정 다지기...대입 홍보관·학폭예방 캠페인도

광주시 동구 금남로 공원이 광주·전남 지역 청소년의 열정으로 채워졌다.

광주·전남지역 중·고교생들의 춤사위와 국악과 클래식, 영화음악 등 장르를 넘나드는 연주는 시민들의 발길을 불러모아 세대 교감의 장이 됐다. 청소년들은 코로나 엔데믹 후 열린 이번 무대에서 마스크를 벗고 시민들과 호흡하면서 마음껏 끼를 발산했다.

광주·전남 청소년들을 위한 종합 문화예술축제인 ‘제12회 광주·전남 청소년축제’가 광주일보사와 아시아문화 주최로 지난 19일 광주 동구 금남로공원 특설무대에서 열렸다.

이번 행사는 올해 창단한 팀을 비롯해 창단 20년째에 접어든 오케스트라까지 참여했다. 이들은 댄스, 그룹사운드, 실용음악 부문에서 탐과 열정이 어우러진 무대를 선보였다.

지난해 참가한 청소년 축제에서 가수 아이유의 불렀던 노래를 들려준 효전 밴드는 흥겨운 음악으로 무대를 열었다.

이어 무대에 오른 효전댄스는 화려한 춤사위로 행사 열기를 끌어올렸다. 효전밴드와 효전댄스는 효전중학교 학생들이 구성된 팀이다.

전자 피아노 연주자로 구성된 플레이키보스트라는 지난 2월 창단한 새내기 팀답지 않은 탄탄한 연주실력으로 박수갈채를 받았다. 전자 피아노 8대를 무대에 배치해 다채로운 레퍼토리를 들려줬다.

광주 5·18 청소년 오케스트라 앙상블은 아리랑부터 요한 슈트라우스 1세가 작곡한 라데츠키 행진곡까지 다양한 스펙트럼을 선보였다. 이수인(광주 예술중 1년) 등 7명이 무대에 선 이들은 음악을 바탕으로 광주의 5월 정신을 계승하자는 의미로 창단한 팀이다.

유스필오케스트라는 관록의 무대를 선보였다. 이들은 클래식 악기 연주단체로 출발했으나 실용음악으로 팀 색깔을 변경했다. 이날 무대에서는 전자 바이올린을 바탕으로 베토벤의 운명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했다. ‘오페라의 유령’ 메들리 등 경계를 넘나드는 색다른 연주로 관객을 사로잡았다.

광주·전남 청소년 축제는 해를 거듭해오면서 청소년들의 음악 교류의 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유스필오케스트라는 플레이키보스트라와 의기 투합해 버스킹 무대에 서는 등 음악으로 우정을 쌓으며 무대를 개척하고 있다.

댄스 부문에는 코드블랙(광주전자공고), 반짝반짝 빛나는 별(정광중) 등이 참가했다. 실용음악 부문에는 가장 많은 팀이 참가해 청소년들의 관심을 받았다. 아이뷰(신가중), 폭풍전야(신장중), 한여름 밤의 꿈(신장중) 등이 무대에 올랐다.

이번 행사에서는 주요 대학 입시홍보관이 마련됐고, 학교폭력·흡연예방 홍보 캠페인도 진행됐다.

광주·전남 청소년축제는 2012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다. 2회 대회까지 광주월드컵경기장 일원에



19일 광주 동구 금남로 공원에서 열린 제12회 광주·전남 청소년 축제에서 댄스부문 참가자 ‘코드블랙’이 무대를 선보이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서 열렸고, 3회부터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금남로근린공원 등지에서 개최되고 있다.

청소년축제는 문화·예술·체육 등 다양한 분야에

서 재능과 열정을 가진 지역 청소년들이 자신의 끼를 발산할 수 있는 무대를 제공해 이들의 꿈을 응원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로 광주일보사와 아시아문화

가 주최하고 광주시, 전남도, 광주시교육청, 전남도교육청, 지역 주요 대학이 후원하고 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 강종만 영광군수 “고발 사주한 사람, 증인 신청할 것”

### ‘선거법 위반’ 항소심 첫 공판서 ‘직위 상실형’ 양형 부당 주장

‘선거 때 도와 달라’며 선거구민인 지역 언론인에게 금품을 준 혐의로 1심에서 직위 상실형을 선고 받은 강종만 영광군수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광주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박혜선)는 지난 1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은 강종만 영광군수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강 군수는 지난해 전국 지방동시선거를 앞둔 1월 16일 선거구민인 지역 언론인 A씨에게 현금 100만 원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의 직위상실형을 선고받자 강 군수는 ‘1심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양형 부당을 주장했고, 검찰도 같은 이유로 항소했다.

강 군수 측은 이날 항소심에서 ‘추가 증인 신문을 신청해 금전을 주고받은 당시 정황을 설명하고 나

선한 다른 후보의 사주를 받아 고발이 이뤄진 내용 등을 추가로 입증하겠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강 군수에 대한 민심의 신망이 두렵다’는 내용의 사실조회를 신청하겠다고 재판부에 설명했다.

검찰 측은 “양형 부당을 따지면서 추가 증인 신문을 하고 사실조회 신청까지 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재판부의 신중한 판단을 당부했다.

강 군수에 대한 다음 재판은 다음달 21일 광주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정병호 기자 jusbh@

## ‘한노총 광주본부 위탁 사업비 부적절 사용’ 경찰 내사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광주본부(노조)가 근로자 종합복지관 위탁 운영 사업비를 부적절하게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내사를 나섰다.

광주 북부경찰은 “광주시 북구 임동에 있는 근로자종합복지관 위탁 운영 사업비 부적절 집행 의혹

을 내사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이 시설은 노조가 광주시로부터 위탁받아 관리·운영하고 있다. 사무실을 비롯해 탁구장과 헬스장 등 주민 생활 편의시설로도 활용되고 있다. 노조는 매년 시에서 관리·운영비를 받고 있다. 올해는 운영

비로 총 2억 3000여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최근 복지관 직원으로 등록된 3명 중 1명이 현직 노조 간부로, 노조가 지급해야 할 간부 급여를 복지관 운영비로 충당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 측은 “해당 간부는 오랫동안 복지관 업무를 총괄했고 직원 관리 등 실제 복지관 업무를 하고 있어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김대인 기자 kdi@

## 전남 일본뇌염 경보...모기 물림 주의를

### 완도서 채집 모기 중 50% 해당

전남도보건환경연구원이 일본뇌염 매개체인 작은빨간집모기 급증이 우려됨에 따라 모기 물림을 주의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20일 전남도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16일 완도에서 전체 채집 모기 1052마리 가운데 528마리(50.2%)로 일본뇌염 경보발령 수준으로 채집됐다.

경보는 채집된 모기의 1일 평균 개체수 중 작은빨간집모기가 500마리 이상이면 전체 모기 밀도의 50% 이상일 때 발령된다. 지난 7월 27일 부산에서 작은빨간집모기 경보발령 수준으로 확인돼 전국에 이미 일본뇌염 경보가 발령된 바 있다.

7월 초부터 경보발령 수준에 근접하게 작은빨간집모기의 밀도가 높았으나 지속적인 장마와 폭염, 태풍으로 그 상승세가 주춤했다. 최근 날씨 변화가 안정되면서 작은빨간집모기는 당분간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야외 활동을 할 때는 ▲밝은색 긴바지와 긴소매, 풀이 넓은 옷을 입어 피부 노출 최소화 ▲노출된 피부나 옷, 신발 상단, 양말 등에 모기 기피제 사용 ▲모기를 유인할 수 있는 진한 향수나 화장품 사용 자제 ▲캠핑 등 야외 취침 시 텐트 안에 모기 기피제가 처리된 모기장 사용 등 모기 물림 예방수칙을 지켜야 한다.

작은빨간집모기는 눈이나 동물 축사 옹덩이, 배수로 등에 서식하고 주로 야간에 왕성하게 활동하며 흡혈한다.

따라서 가정 등에서는 ▲방충망을 점검하거나 모기장 사용하기 ▲집 주변 물웅덩이, 막힌 배수로 등 모기 서식지 없애기 등으로 모기 물림을 줄여야 한다.

일본뇌염 바이러스를 가진 매개모기에 물리면 초기 증상은 무기력증, 발열, 두통이지만 드물게 뇌염으로 진행되면 고열, 발작, 목 경직, 마비 등 심각한 증상이 나타나고 이 중 20~30%는 숨질 수 있다. 지난해에는 전국적으로 11명의 환자가 발생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동행재활요양병원 DongHaeng Convalescent Hospital

“ 환자맞춤형 치료를 통하여  
회복과 통증완화를 돕습니다. ”

일반  
요양

중풍  
재활

수술후  
재활

### 의학·한의학 협진

의학·한의학 협진을 통해 침치료, 부항, 침약 등의 한방 치료를 제공하여 회복과 증상완화를 돕습니다.

### 질화에 맞는 치료 제공

중추신경계 치료와 근골격계 추나 치료, 통증치료를 통해 통증완화 및 기능회복이 앞당겨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면회공간

환우분의 만남의 장소를 병원 1층에 면회와 운동, 카페 이용이 가능합니다.

### 다양한 프로그램

신체프로그램, 인지프로그램, 작업프로그램, 사회적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병원내 생활 공유

환우분의 근황 및 일상을 카카오톡을 통해 알려드립니다.

동행재활요양병원은 『환자의 안전』과 『우수한 의료서비스』를 정부로부터 인정받은 기관입니다.

광주역 앞 (신안동 2-3)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226 062)720-2000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심의일련번호 제190816-총-38891호